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나타난 일본인명 표기에 관한 연구*

김 영 귀**

〈목 차〉

- | | |
|--------------------|-----------------|
| I. 서론 | 2. 사회적 환경 |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도서관 환경 |
| 2. 연구의 방법 | V.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
| 3. 선행연구 개관 | 일본인명 표기 분석 |
| II. 국회도서관과 정기간행물색인 | 1. 연도별 수록현황 |
| 1.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 2. 연도별 배열방법 |
| 2. 정기간행물기사색인 | 3. 우리음과 원음의 표기에 |
| III. 인명표기와 인명전거파일 | 따른 배열 위치 |
| IV. 일본인명표기의 현황 | VI. 결론 |
| 1. 교육적 환경 | Abstract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명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다. 성명은 바로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은 바로 그 성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명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성명 원래의 발음으로 읽어야 하며 읽은대로 표기되어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여자대학교문헌정보과 조교수

야 한다. 고유하다는 것은 “본디부터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과 자기를 구분해 준다. 그래서 고유명사라 함은 “어느 한 사람이나 물건에 한정하여 특별히 그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인명, 지명, 신문, 잡지 등의 이름, 홀로 이름씨”(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큰사전, p. 253)임을 뜻한다. 때문에 이런 고유한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일본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때마다 들고 나오는 독도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여러 문헌과 증거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임이 입증되었지만 독도를 “獨島”로 표기하느냐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한국과 일본 두나라의 영토문제로 주권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동해를 “東海”로 표기하느냐 “日本海”로 표기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두나라 사이의 嶺海문제가 되는 것이다. 고지도에 東海에 관한 불어표기는 日本海가 아니라 “東海” 또는 “韓國海”로 되었다¹⁾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고, 또 18세기 러시아 지도에도 東海를 韓國海로 표기해 놓은 것을 러시아 고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하였다.²⁾ 따라서 동해를 일본해로 고집하는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억지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지명의 표기문제는 단순한 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간의 영토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킬만큼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발행한 CD롬 월드 아틀라스와 백과사전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땅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의 세계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대로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영토로 구별하고 있어³⁾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인명의 경우를 보자. 1975년 재일 한국인 최창화 목사는 “한국인의 이름은

1) 서정철, 서양고지도와 한국, 서울 : 대원사, 1991, p. 54.

2) 동아일보, 1996. 10. 30. 45면.

3) 동아일보, 1996. 8월 23일, 29면

일본식으로 읽는 것은 인권침해다.”라고 하여 일본 국영 방송국인 NHK 방송에서 자기 이름을 <최창화>라 읽지 않고 <사이 쇼까>라 읽었다고 일본방송협회를 상대로 하여 사죄와 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일이 있었다. 인명의 고유성은 원음대로 읽어야 하며 읽은대로 표기되어야 하는 그 사람의 인격권임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본명소송”을 계기로 일본사회는 물론 도서관계에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都立江東圖書館, 高知市民圖書館 등이 모든 한국인명을 모국어발음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國立國會圖書館은 일본목록규칙 신판예비판의 규정변경과 관련하여 1983년 7월 한국인명의 독음법을 변경⁴⁾한 것 등이다.

일본인명도 마찬가지다. 세계 어느나라 사람도 한국사람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읽고 표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계 다른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그 나라식으로 읽고 표기해야 한다. 때문에 일본인명이라 하여 무시하거나, 차별화하거나, 그 고유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도서관 목록에 있어서 인명은 자료검색의 중요한 단서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인명의 고유성을 인정해야 하고, 그 인명을 일관성있게 표기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정확히,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세계 여러나라와 학술정보를 상호교환하여 정보를 공유하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명표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만약 무라카미 하루키(村上 春樹)를 <춘상 춘수>로, 가와바타 야수나리(川端 康成)를 <천단 강성>으로 발음하고 표기해서는 알지 못할 것이고 이들의 저작은 검색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 현실은 관리상의 편리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일본인명을 우리발음으로 읽어서 표기하고 배열하거나 또는 한문으로 된 이름은 우리발음으로 읽어서 표기하고, 원음으로 표기되어

4) 李春澤, “日本圖書館界의 韓國人名表記法에 관한 考察,” 공주사범대학논문집, 27집 (1989), pp. 359-360.

출판된 자료는 원음으로 표기하여 배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원화된 배열구조로 인한 일관성이 결여된 목록작성은 이용자의 자료검색에 혼란을 준다. 즉 동일저자의 저작이라 할지라도 저자명이 다르게 표기됨으로써 목록도 분산되어 배열되고 자료자체도 다른 서가에 꽂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이용자의 검색효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용자 만족도는 낮아지며 자연 도서관을 찾는 횟수가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일부 일본인명 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도서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 현장에서는 일본인명을 원음대로 발음하여 표기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서의 부족과 그러한 인력부족을 메꾸어 줄 일본인명 표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명전거파일 이 없었으며, 원음표기를 시작하려면 기존의 우리음으로 표기된 모든 일본자료를 원음표기로 변환해야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해서 현장의 도서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國家書誌(National Bibliography)를 작성하는 곳이다. 국회도서관에서 간행되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그 해 국내에서 간행되는 정기간행물에 수록되는 논문기사에 대한 색인으로 종합서지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되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이 단행본에 대한 국가서지라면, 국회도서관에서 간행되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국내 정기간행물에 대한 국가서지라 할 수 있다. 이 두 출판물은 우리나라 전체 출판물에 대한 종합서지로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서지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서지이며, 세계 각국의 서지정보 교환의 표준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서지통제(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UBC)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가서지로서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색인에 등장하는 일본인명을 그 고유성을 인정하여 원음대로 표기하고 있고, 또 그 표기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명전거파일의 근거

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서지 및 학술정보 교환의 표준으로서 적합한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국가서지로서 이 색인이 갖추어야 할 위상을 정립해 볼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자료는 국회도서관에서 간행되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으로 그 중에서 권말에 실린 <필자색인>이다. 구체적으로는 <필자색인>에 나타나는 일본인명의 표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범위는 1945년 부터 1994년 까지 50년간 이다.
- 2) 연구방법은 먼저 50년간의 연도별 자료의 간행형태를 파악한다.
- 3) 일본인명 표기방법의 변천과정을 고찰한다.
- 4) 우리음으로 배열된 인명표기(한글표기, 한문표기 포함)의 현황을 분석한다.
- 5) 원음으로 표기된 인명표기의 현황을 분석한다.
- 6) 우리음으로 배열된 인명과 원음으로 배열된 인명을 비교분석한다.
- 7) 우리음으로 배열되었을 때의 이용자의 검색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 8) 우리음과 원음으로 배열된 인명의 배열위치를 분석한다.

3. 선행연구 개관

목록표기 중 일본인명 표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외로 일본인명 표기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가 부족하고, 현재 각 도서관 장서에서 일본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또 계속 일본자료의 입수가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있어며 영어는

물론 일본어의 중요성과 함께 학술교류와 서지정보 교환에 원음에 의한 인명 표기의 일관성과 표준화가 전제되어야만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세계서지통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⁵⁾에 의하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목록중 표목과 기술, 배열에 관해 연구한 논문은 58편이고, 표준화에 관한 것은 14 편이다. 그리고 인명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연구는 12편이다. 국내 의 인명표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는 이재철⁶⁾, 박상균⁷⁾, 이철 교⁸⁾, 최달현⁹⁾, 한순정¹⁰⁾, 김치우¹¹⁾, 고석준¹²⁾, 최정태¹³⁾, 유경숙¹⁴⁾¹⁵⁾의 연구가 있고, 오동근¹⁶⁾은 전통적인 목록의 표기법 또는 독음에 대한 처리문제가 MARC 포맷에 어떻게 반영되고 포맷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 찰했으나 표기법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인명표기법을

- 5) 박준식, 이애란 공편,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4.
- 6) 이재철, "한글로마자 서지목록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협월보, Vol. 17, No. 4(1976), pp. 7-10
- 7) 朴尙均, "도서기호 조직의 실제: 당면한 제문제를 중심으로," 도협월보, Vol. 19, no. 6(1978, 7-8), pp. 2-7.
- 8) 이철교, "한글로 표기된 목록카드의 배열에 대하여," 도협월보, Vol. 19, no. 6(1978, 7-8), pp. 8-16.
- 9) 최달현, "圖書館目錄上 韓字表記의 實態와 諸 問題 - 우리나라 公共 및 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 경북대학교논문집, Vol. 28(1979), pp. 209-223.
- 10) 한순정, "동양자료 편목에 있어서 국제표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논문집(숙명여자대 학교), 19집(1979, 12), pp. 365-386.
- 11) 김치우, "일서목록에 있어서 표목의 표기방법에 관한 문제와 대책," 한국비블리아 (1984,10), pp. 1-22.
- 12) 高錫俊, "圖書館目錄에 있어서 標目的 表記에 關하여 - 標記文字를 中心으로 -, " 국립대학도서관보, 제4집(1986), pp. 101-155.
- 13) 崔貞泰, "자료목록에 있어서 우리말의 로마자表記와 外來語의 로마자表記 - 매스컴 報道資料와 關連하여 -, " 국립대학도서관보, 제5집(1987), pp. 1-20.
- 14) 兪景淑, "외래어표기법과 도서관목록상의 번자(韓字)표기문제," 부산산업대학교논문집, 제9집(1988), pp. 151-183.
- 15) 兪景淑, "국어정서법상의 외래어표기문제 -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 " 경성대학교논문 집, 제14집 1권(1993, 3)
- 16) 吳東根, "MARC 포맷과 표기법," 情報管理學會誌, Vol. 8, no. 1(1991), pp. 33-49.

독립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이춘택¹⁷⁾, 김영귀¹⁸⁾가 있다. 전자는 일본도서관계의 한국인명 표기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후자는 도서관 목록에 있어서의 일본인명 표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인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로마자표기, 그 표기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전거파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표준화를 통해서 세계서지통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외 연구자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로마자와 번자표기,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에 관한 표기연구로는 Tanabe¹⁹⁾, Weinberg²⁰⁾, Spalding²¹⁾, Oda²²⁾가 있고, 미국사회에서 중국어의 로마자 선택에 관한 논쟁을 다룬 Studwell, Wang, and Wu²³⁾의 연구가 있다. 인명에 관한 Uto, Tohyama, and Mori²⁴⁾의 연구는 일본인명(개인 저자명)에 관한 것으로 TRC-MARC, Japan-MARC, JBCAT-MARC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일본인명의 전거통제의 조건을 명료하게 하려고 시도된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목록에 있어서의 한국인명을 읽는 방법 및 표기에 관한 연구로는 山

-
- 17) 李春澤, “日本圖書館界の 韓國人名 表記法에 대한 考察,” 공주사범대학논문집, 27집 (1989), pp. 35-363.
- 18) 김영귀, “목록에 있어서의 일본인명 표기-「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색인에 나타난 표기를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20집(1993), pp. 285-315.
- 19) Hiroshi Tanabe, “The Japanese language and Chinese character,” *Proceedings of IFLA Worldwide Seminar*, Seoul, Korea(1976), pp. 270-279.
- 20) Bella Weinberg, “Transliteration in documen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30, no. 1(Mar. 1974), pp. 18-31.
- 21) C. Sumner Spalding, “Romanization reexamined,”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21, no. 1(Winter 1977), pp. 3-12.
- 22) Yasumada Oda,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 transliteration and romanization : Japanese experience in a mechanized system,” *Proceedings of IFLA Worldwide Seminar*, Seoul, Korea(1976), pp. 361-369.
- 23) W. E. Studwell, R. Wang, and H. Wu, “A tale of two decades : the controversy over the choice of Chinese language romanization in America,”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18, no. 1(1993), pp. 117-124.
- 24) Y. Uto, J. Tohyama and S. Mori, “Survey of the names of Japanese personal authors,” *Annal of Japan Society of Library Science*, Vol. 39, no. 1(Mar. 1993), pp. 13-24.

崎賢二²⁵⁾, 藤田豊²⁶⁾, 杉原繁治²⁷⁾, 鈴木裕子²⁸⁾, 高橋惇一²⁹⁾, 西森鶴喜³⁰⁾의 것이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한국인명의 원음발음과 한글표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인명표목을 위한 인명전거표목과 인명전거파일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Tilet³¹⁾, Fuller³²⁾, Shore³³⁾, Elias and Fair³⁴⁾가 있다. 杉山時之³⁵⁾, Massil³⁶⁾, McRee³⁷⁾는 서지정보의 국제적인 교환을 위한 표준과 多表記에 있어서의 표준처리를 다루었으며, 아울러 학술정보의 유통을 다룬 논문은

-
- 25) 山崎賢二, “目録における朝鮮人名の読み方,” 圖書館雜誌, Vol. 74, no. 4(1980), pp. 162-163.
- 26) 藤田豊, “朝鮮人名の読み方についての意見,” 圖書館雜誌, Vol. 74, no. 6(1980)
- 27) 杉原繁治, “日本目録における朝鮮人名の日本語讀みの問題について,” みんなの圖書館, 1981. 3., 이춘택, 전계논문에서 재인용.
- 28) 鈴木裕子, “朝鮮語圖書のハン글表記について,” 아시아經濟資料月報 (1982, 2)
- 29) 高橋惇一, “目録での朝鮮人名の讀みで提案,” 圖書館雜誌, Vol. 77, no. 1(1983)
- 30) 西森鶴喜, “朝鮮人名の母國語讀みについて,” としょかん批評, 4號(1984, 7), 이춘택, 전계논문에서 재인용.
- 31) Barbara B. Tillet, “Considerations for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9, no. 3(1989), pp. 1-11.
- 32) Elizabeth E. Fuller, “Variation in personal names in the works represented in the catalo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9, no. 3(1989), pp. 75-96.
- 33) Melinda L. Shore, “Variations between personal name headings and title page usag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4, no. 5(1984), pp. 1-11.
- 34) Cathy Ann Elias and C. James Fair, “Name authority control in a communication systems,” *Special Libraries*, 74(July 1983), pp. 289-296.
- 35) 杉山時之, “書誌情報と國際化,” 現代の圖書館, Vol. 26, no. 4(1988), pp. 23-227.
- 36) S. W. Massil, “Standards for character sets and bibliographic records,” in : *Standard for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by I. C. McLaine. London :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1991, pp. 52-59.
- 37) J. McRee, “Use of international cataloging standards for Eastern material : using ISBD(M) in multi-script collections,” *Proceedings of IFLA Worldwide Seminar*, Seoul, Korea(1976), pp. 244-264.

Naito and Yamada³⁸⁾의 것이 있다.

II. 국회도서관과 정기간행물기사색인

1.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한국의 도서관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약 25년간 법개정이 없다가 1987년에야 비로소 각종 도서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한 도서관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특히 이 법에는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확실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에 국가도서관적 기능과 공공도서관적 기능을 이원적으로 부여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국가도서관 기능은 국회도서관에서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³⁹⁾ 구체적인 국회도서관의 기능은 국회도서관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관리하여 국회의원 및 관계 국회직원에게 필요한 입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지자료(정기간행물기사색인,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 등)의 발간 및 배포, 외국기관과의 자료지원을 통한 상호협력 및 우리문화의 해외전파, 언론기관, 교육기관 및 당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한 일반인에게도 봉사하는 국가도서관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또 국회도서관은 법규상 국립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남본도서관이다.

38) E. Naito and H. Yamada, "Toward the acceleration of East Asian scholarly information flow : final report of a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of Japan," *Forum on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Vol. 18, no. 1(Jan. 1993), pp. 21-26.

39) 이진상, "최근 한국의 도서관 발전에 관한 — 考," 국회도서관보, 28권, 3호(1991, 5-6), p. 7.

40) 이진상, *삼계논문*, p. 4.

이상에서 보면 현재 국회도서관의 역할은 거의 국가도서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국가대표도서관 기능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한 기능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경쟁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회도서관의 기능은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라는 두 활동으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선진국 뿐만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그러한 정보의 상호교환과 교류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지정보와 학술정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교환하여 정보를 공유하려면 세계적인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이 필요하다. 즉 세계적인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표기방식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표기된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색인지는 정보원과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정보전달 매체로서 특정 주제 분야의 문헌을 탐색하거나 연구의 성과를 조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문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문헌의 서지적 사항 또는 그 문헌의 소재 등을 알려주는 탐색도구이다.⁴¹⁾ 이러한 색인지는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학문연구를 폭넓게 지원해 주며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사서를 포함한 정보전문가, 그리고 정보제공기관과 정보이용자가 이러한 이차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정기간행물에 대한 색인 작업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학술잡지색인>으로 1960년부터 3년간의 것을 두권으로 사전체식으로 편집하여 발행하다가 “도협”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받게 되자 1964년

41) 이철자, 박준식, “韓國의 現行 索引誌에 관한 分析的 研究,” 도서관학논집, 제24집 (1996, 여름호), p. 365.

11월 국회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1963년도분부터 <국내간행물기사색인>으로 제명을 바꾸어 계간으로 발간하다가 1969년부터는 현재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으로 改題하고 또한 1980년부터는 계간으로 하던 것을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다.⁴²⁾ 그후 1994년부터 다시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색인업무는 索引課에서 담당하고 있다. 색인과는 국회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필요한 정보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회의록색인, 국정감사회의록색인, 정기간행물색인, 주요자료속보 등을 발간하여 국회의원은 물론 국내의 각 도서관 및 학술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⁴³⁾

현재 국회의회의록색인,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주요자료속보 등은 1989년부터 색인과에 설치된 단말기에 담당직원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처리 발간하고 있으며, 91년 4월부터는 국회의회의록 색인, 국정감사회의록색인,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주요자료속보 등을 검색어에 의한 온라인 자료검색도 가능하게 되었다.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연속간행물 및 학술잡지 중 국회도서관에 수집되는 학술잡지와 정부간행물, 대학간행물, 각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영속간행물에 수록된 기사 중 정책자료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논문 등을 선정하여 주제별로 분류 색인한 것이다.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주제분류는 1. 정치·행정, 2. 법률, 3. 경제, 4. 산업·농수산, 5. 사회·노동, 6. 교육, 7. 문화·예술, 8. 문학·어학, 9. 철학·종교, 10. 역사·지리, 11. 순수과학, 12. 의학·약학, 13. 공학·기술의 13류로 나누고 다시 소항목으로 세분하여 390여 항목으로 나누어 필요한 기사를 찾을 때는 분류표상의 주제별로 찾을 수 있으며, 기사의 기술방법은 필자, 논제, 역자(단, 있을 경우), 수록지, 통권수 또는 권호수, 간행년월, 수록페이지 순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분류색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항목의 가나다

42) 이민환,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작성방법에 관한 小考—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제27권, 1호(1990, 1-2), p. 113.

43) “1994 국회도서관 활동,” 국회도서관보, 제32권, 1호(1995, 1-2), p. 77.

순 목차를 게재하고 있으며 연간누적본에서는 필자색인을 게재하여 필자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회업무의 전산화⁴⁴⁾는 1978년 KORSTIC(현 KIET : 산업연구원)의 협력 아래 국회도서관업무전산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해에 국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시스템을 개발하여 DB를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기간행물기사색인」 1977년도분은 KORSTIC(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TK-70컴퓨터를 사용하여 최초로 입력, 편집, 제작되었고, 1978년도분부터 1981년분까지는 동센터의 S-5300 한글, 漢字,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입력, 편집, 제작되었으며, 1982년도분부터는 KIET(산업연구원)의 IBM4341 초대형컴퓨터와 SP-7한글, 漢字,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편집, 제작되었다.⁴⁵⁾ 1977년부터 현재까지 약 63만 5,388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검색어에 의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⁴⁶⁾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수록된 자료의 망라성, 간행물 선정의 엄정성과 자료내용의 학술적 가치로 볼 때 정기간행물에 관한 종합서지로서, 또 국가서지로서의 역할을 가능할 수 있다. 또 전반적인 국회업무의 전산화를 보면 여러 업무중 “정기간행물기사색인시스템”을 무엇보다도 먼저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것을 보면 국회도서관에서 그만큼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Ⅲ. 인명표기와 인명전거과일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목록이라 함은 “수장 및 출품된 물건의 품목을 정리하여 기록한 것으로 품명의 질서있는 나열⁴⁷⁾이라 정의되나, 도서관에서

44) 천완수, “국회업무의 전산화 방향,” 국회도서관보, 제26권, 3호(1989, 5-6), pp. 20-21.

45) 이인환, 전계논문, p. 116.

46) “1994년도 국회도서관 활동,” 국회도서관보, 제32권 1호(1995, 1-2), p. 79.

47)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1975.

는 자료목록의 약칭으로 사용된다. 좁은 의미로는 특정 集書나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전거목록의 통제를 통해서 일정한 구성방침에 따라 기술하고 작성한 기입의 총칭이다.⁴⁸⁾ 대개는 자관의 소장목록을 지칭하는 말이나 이 가운데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고려하여 편성된 목록을 의미하며 이용자의 자료검색도구로 이용된다.

목록의 근본적인 기능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나 종합하여 본 공통적인 특성은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⁴⁹⁾ 첫째, 검색 기능이다. 둘째, 식별 기능이다. 셋째, 소재지시 기능이다. 넷째, 辭書의 기능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목록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료에도 여러 종류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나 도서관의 목적, 이용자의 수준, 직원의 능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수준과 필요에 응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경우로든지 필요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료의 내용을 이용자가 잘 알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자료간의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지적인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매체로서의 목록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목록의 기능을 요약하면 특정문헌의 검색기능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목록상에서 집중하는 기능⁵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목록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은 주로 표목이 담당하였다. 표목이라 함은 목록기입의 제일 상단에 있는 말이나 기호⁵¹⁾로 올림말이라고도 한다. 카드목록에서는 그 최상단에 기재된 말로서 기입의 배열위치를 결정하며, 검색어로서 검색의 수단이 된다. 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자명, 서명, 주제명, 분류기호이다. 검색을 위한 기입의 형식과 검색어를 망라한 표목의 종류 중에서 저자명 표목은 의한 인명표목과 단체명표목으로 대별된다. 저자⁵²⁾는 도서의

48)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126.

49) 김남석, 자료목록학,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5, pp. 18-20.

50) 김태수, "표목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2권, 2호(1995), p. 31.

51) 사공철 등편, 전거서, pp. 410-411.

52) 김남석, 자료목록학, p. 260.

저작에 따른 관계를 표시한 성격에 의해 저자, 편찬자, 번안자, 개작자, 각색자, 역자, 주석자, 평석자, 교정자, 해설자, 혼점자, 삽도자. 등이 있다. 이들 저자가 주기입의 표목이나 부표목, 즉 저자명부출표목과 저자명분출표목이 된 목록을 모두 저자명표목이라 한다.

이처럼 인명표목은 문헌을 검색하는 수단이며, 목록기입의 배열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명표목을 나타내는 인명의 표기는 그 표기방식에 따라 검색의 효율이 달라지고, 그 문헌의 배열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목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올바른 표기가 있어야 한다. 목록기입에 있어서 표목으로 선정된 저자명(개인 또는 단체), 무저자명 도서, 그리고 고전의 기입형식에 대한 근거나 출처를 밝혀주고 그 외 여러 형식도 아울러 표시하여 통일성있는 자료의 정리에 참고가 되도록 만든 목록이 전거목록이다. 그렇게 해야만 전거가 되는 이름, 주제, 서명 등을 서지자료의 표목으로 정하는 일관성있게 채택되도록 한 전거통제가 가능하다. 인명의 올바른 표기와 일관성있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명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다양하게 표기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여 동일인명에 대한 일관성있는 표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인명전거목록이 있어야 한다.

인명전거목록은 표목으로 쓰여지는 인명, 단체명 등의 기입형식을 통일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을 음순에 따라 배열, 편성한 사무용목록이다. 인명전거는 한 저자가 2개 이상의 형식에 의하여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改姓, 改名하였을 때, 그 중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표목기입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저자명전거이다. 따라서 올바른 그리고 일관성있는 인명표기를 위해서는 인명전거목록이 필요하며, 인명전거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명전거파일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전거목록을 만들기 위한 전거통제에 관한 것⁵³⁾이 있으나, 이는 한자

53) 한국정보관리학회, 전거통제용 KORMARC 형식개발에 관한 연구 = The development of the KORMARC format for authority data,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3.

데이터의 개인명 표목표기를 그 독음에 해당하는 한글데이터를 입력하는 KORMARC 기술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사실 전거파일 업무는 엄청난 작업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국가기관(대표기관)의 것을 쓰면 그 업무를 중복할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는 이미 존재하지만 일본인명도 인명전거파일을 CD-ROM에 담아 Bibliofile처럼 각 도서관에서 검색하여 일치된 것을 사용하고 새로운 이름은 참여도서관(지역도서관)이 정보를 보내 기존 파일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필자색인”에 나오는 일본인명은 일본인명전거파일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인명전거목록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도서관도 있겠지만 인명전거목록을 만들고 싶어도 여러 여건상 만들 수 없는 도서관, 만들기는 해도 그 형태가 불완전한 곳에서는 그 전거목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관의 특성에 따라 그 “필자색인”을 토대로 해서 인명전거파일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또 “필자색인”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로 각 전문분야에서 활약하는 저자들이므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색인”의 표기는 원음표기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 도서관서비스의 일환으로 국회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도 될 것이다.

IV. 일본인명 표기의 현황

1. 교육적 환경

1940년 朝鮮語學會에서는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을 제정하였다.⁵⁴⁾ 이 안의

54) 朝鮮語學會, 外來語表記法統一案, 同學會, 1940.

제정에 있어서 학회는 책임위원 3인을 선정하여 ①外來語表記法 ②國語音表記法 ③朝鮮語音羅馬字表記法 ④朝鮮語音萬國音聲記號法에 대한 각안을 기초 하면서 회원은 물론 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조선음성학회, 일본 음성학협회 및 각 기관의 음성과학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국제음성학협회(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세계언어학자대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세계실험음성과학대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Experimental Phonetics), 세계음운학대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ology) 및 각국 음성학 연구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참조하여 원안을 작성하였다.

외래어표기법 제 1장 총칙을 보면, 1)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함에는 原語의 綴字나 語法的 형태의 어떠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表音主義로 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字母와 字形만으로써 적는다. 2) 表音은 原語의 발음을 정확히 표시한 萬國音聲記號를 표준으로 하여, 아래의 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외래어의 원음표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부록 1 “國語音表記法” 총칙은 1) 국어음을 한글로 표기함에는 표준발음에 의한 表音主義로써 하되, 현재 사용하는 字母나 字形만으로써 적는다. 2) 表音은 아래의 假名한글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본어의 假名(가나)表記를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외래어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안을 마련하여 일관성있는 표기를 하도록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현행 교육부에서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경우, 일본어와 중국어 원음 그대로 표기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漢字를 원괄호 속에 부기하고 있다.⁵⁵⁾ 이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원음으로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을 알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

55) 김영키, 전계논문, pp. 294--297.

은 그 당시 문교부가 새로이 개정한 <외래어표기법>⁵⁶⁾이 교과서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告示(제85~11호)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4장 인명, 지명표기의 원칙 가운데 제2절에선 중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동양의 인명, 지명표기라 규정하였다. “제1항: 중국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라고 하고,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라고 하였다.

일본의 인명, 지명으로서 꼭 우리 한자음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제1장 제5항의 규정(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에 의하여 관용어를 특별히 사정하는 길이 남아있기는 하다.⁵⁷⁾ 그러나 비록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원음표기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 전통은 원음을 존중한다는 지금의 외래어표기법의 기본태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원음의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함께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 배우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오다 노부나가(織田 信長)를 <직전 신장>, 토요데미 히데요시(豊臣 秀吉)를 <풍신 수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 家康)를 <덕천 가강>, 무라카미 하루키(村上 春樹)를 <촌상 춘수>, 오에 겐자부로(大江 健三郎)를 <대강 건삼랑>으로, 그리고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郎)를 <교본 용태랑>으로 읽지 않고 또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인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올바른 지식은 교과서에서 배운 인명의 한계를 넘어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56) 문교부, 외래어표기법, 문교부고시 제85-11호, 1986, 1. 7.

57) 문교부(국어연구소)편, 외래어표기용례집(지명, 인명), 서울, 법제연구원, 1986, p. 40.

그대로 지속되며, 그것은 바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는 인명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음으로 배운다면 그 지식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이 될 것이다. 외국사람은 알아듣지 못할테니까.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일본인명(중국인명을 포함하여)을 원음대로 표기하고 또 그렇게 배운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며 국가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환경

사회적 환경은 크게 언론과 출판분야를 볼 수 있다. 먼저 언론분야를 보면 1986년 1월 31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신문제작에 있어서 외래어표기를 교육부(당시 문교부)가 제정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기로 결의한⁵⁸⁾ 이래 지금까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실제 신문에 표기된 일본인명의 실례를 보면⁵⁹⁾ 각 일간신문에 나타난 일본인명의 표기는 일본어 원음으로 표기하며, 그 원음의 한자를 원괄호 속에 부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스포츠면의 경우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원음표기만 있고 한자부기가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교육부의 <외래어표기법>을 따르기로 한 결의를 잘 준수하면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가지는 사회제도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중국인명의 표기라 하겠다. 일본인명의 표기는 이제 거의 자리가 잡혔으나 중국인명 표기는 어느정도 혼란은 있으나 원음표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례를 보자.

① 鄧小平(덩 샤오핑)과 딸 鄧榕(덩 룡)은…… (같은 인명이 반복해서 등장할 때는 괄호 속의 한글부기가 없었다(조선일보, 1995, 2. 26, 6면)).

58) 동아일보, 1986, 2. 1., 2면.

59) 김영귀, 전개논문, pp. 297-299.

② 대만서 활동중인 한국인 가수 장호철…… 무명시절 등갑내기 여류사업가 커량량(柯良良)씨를 만나 3년의 열애 끝에…… 현재 두사람 사이에는 세살바기 딸 쩡언(張恩)양이 있다(조선일보, 1995, 7. 30. 19면).

③ 친지엔(陳 健)외교부 대변인. 타이완(臺灣) 난사(南沙)군도…… (한국일보, 1995, 7. 13. 8면)

④ 마쥔런군단의 왕권샤-취운샤 신기록 다툼(한국일보, 1995, 10. 11. 22면)

⑤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 멩련(孟連)縣에서 7. 3의 강진(強震)이 발생…… (중앙일보, 1995, 7. 13. 6면).

⑥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일보, 1995, 7. 13. 6면)

⑦ 일본은 江澤民(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한을 계기로 韓中협력이 깊어지는 모습에 민감하고도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동아일보, 1995, 11. 16. 6면).

⑧ 중국모델 류잉훤가 15일 리틀엔젤스에술회관에서 열린 세계아시안메가모델선발대회에서 1 등을 차지했다(동아일보, 1995. 12. 17. 25면).

⑨ 등소평 사후의 중국 최고통치권을 장악하는데 강택민의 경쟁상대는 보수파 이봉 총리로 꼽히고 있다(부산일보, 1995, 10. 13. 6면).

⑩ ……세계의 마녀 정하이사가 버틴 중국을…… 대파하는 쾌거를 불렀다(부산일보, 1995, 10. 8. 21면).

그리고 TV방송에서는 “장쩌민”주석이라고 발음과 표기를 한 경우(KBS2, 1995. 10. 14. 8시 뉴스)와 “강택민”으로 발음, 표기한 경우(MBC, 1995, 10. 14. 9시 뉴스)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글에 한자표기를 부기한 경우, 둘째, 한자에 한글표기를 부기한 경우, 셋째, 한자만 표기한 경우, 그리고 넷째 한글만 표기한 경우다. 첫째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방식이지만 나머지는 언론사 사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스포츠나 연예소식에서는 한글표기만 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것은 요즘 각 언론사의 편집방침의 하나로 한글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가로쓰기와 한글전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같은

신문에서 2가지 표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일관성을 결여할 뿐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의 준수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원음표기 위주로 나아가는 것은 희망적이라 하겠다.

두번째 출판분야를 보자. 국내에서 출판되는 출판물도 일본인명을 원음대로 표기하고 있다.⁶⁰⁾ 그리고 언론사에서 간행된 출판물은 신문의 표기방식대로 한글표기에 한자를 부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표기방식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예: 다나카 가쿠에이(田中 角榮) 1918~「1993」 일본의 정치가. <동아백과사전, V. 8, 1982, p. 132>: 다나카 야스오 지음, 어젠지 크리스탈한, 안도섭 역, 서울: 문음사, 1981). 즉 동일인물이 출판사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표기방식에 대한 통일이 있어야 한다.

언론과 출판이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본 일본인명(중국인명 포함) 표기는 표기방식의 통일을 고려한다면 원음대로의 독음과 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겠다. 단 출판계의 표기방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외래어표기법에 준해서 표기해야 할 것이다.

3. 도서관 환경

도서관 전체장서에서 일본어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일본자료가 단일 언어자료로서는 도서관 장서구성에 있어서 두번째나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래 학자들이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일본어 해독자가 많아 일본어자료를 많이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출판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의 출판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⁶¹⁾ 또 앞으로도 일본어자료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연간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도서가운데 50%가 일본어로 쓰여진 것이고, 독어와 프랑스어

60) 김영귀, 전계논문, pp. 299-300.

61) 고석준, 전계논문, p. 141.

로 쓰여진 도서는 합쳐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⁶²⁾ 이것이 1993년도 통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더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도서관에서는 일본인명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특수도서관 중 69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어자료의 인명표기의 현황⁶³⁾에 의하면, ① 한자 :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 가나 : 일본원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② 일본원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③ 일본원음으로 읽어 가나표기 ; 한자 옆이나 위로 우리음 토를 단다 ④ 한자 :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 ; 가나(假名)가 섞인 경우 : 원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⑤ 한자 :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 서명가나(假名) : 번역하여 표기 ⑥ 일본원음으로 읽어 로마자로 표기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69%(48개관)가 ①의 방식, 즉 한자로 된 일본인명을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표기법은 같은 인명이 한자로 쓰일 때와 가나로 쓰일 때 다르게 표기되어 통일성이 없고 현대에 통용되고 있는 원음표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을 대표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할지라도 도서관 표기방식의 일관성과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본도서관이며 국립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되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에 나타난 일본인명 표기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은 한햇동안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간행물에 관한 목록이다. 출판물의 포맷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이 그 범주에 속한다.⁶⁴⁾ 그래서 국내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에 관한 국가서지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남본을 받기 시작한 1965년도부터 1991년까지 27년간의 이 목록의 색인에 나타난 일본인명 표기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⁶⁵⁾

62) 손정식, “제 2외국어 경제학,” 주간매경, 719호(1993, 8. 18.), p. 79.

63) 고석준, 전계논문, p. 110.

64) 87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서울, 동도서관, 1995.

65) 김영귀, 전계논문, pp. 306-312.

① 1965~66 : 원음(일본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 배열하였고, 이는 한글 학회의 <가나한글표기법>에 따른 것이다. 서양인명만 문교부(현 교육부) 제정 <로마자한글화표기법> 원칙을 따랐다.

② 1967~72 : 원음으로 읽어 한글표기하였고 일본인명도 <로마자한글화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특기할 것은 한글로 표기하는 대신에 원괄호속에 한자를 부기하고 있다.

③ 1973 : 한글표기(한자부기가 없다)와 한자표기가 혼합되어 있고, 한문표기는 우리음으로 읽어서 배열하였다.

④ 1974 : 한글표기와 배열로 되어 있으나 원괄호에 한자를 부기한 것과 안한 것이 혼합되어 있다.

⑤ 1975~1976 : 원음으로 읽어서 한글표기와 배열을 하였다. 한자부기는 없다.

⑥ 1977~1988 : 저자색인이 없었다.

⑦ 1989~1991 : 일본인명이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우리음으로 읽어서 기술한다는 원칙아래 동일인명의 경우 가나표기와 한자의 우리음표기가 혼합 배열되었고, 상호참조하게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표기에 대한 원칙이 해마다 다르고 일관성없이 수행되고 있어 표기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인명의 모국어 발음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원음발음에 표기에 한자가 부기된 1967~1972년까지의 표기가 가장 바람직한 표기형태라 생각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전국의 현장 도서관을 선도하고 도서관 업무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에 나타난 일본 인명 표기는 이 목록의 망라성으로 인하여 타 도서관에서 전거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에서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혼란만 줄 뿐이다.

이상에서 볼 때 교육분야와 언론, 출판분야 그리고 도서관분야의 표기

방식을 비교해 보면 도서관분야가 제일 낙후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 이미 일본인명을 원음으로 읽고 배운 후 사회에 나오면 언론과 출판분야가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에 들어 와서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실종하게 된다. 제일 앞장 서서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도서관분야가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V.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일본인명 표기분석

국회도서관에서 간행되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수록된 필자색인의 일본인명 표기를 분석한 것으로 1945년부터 1994년까지의 50년간의 색인을 분석한 것이다.

1. 연도별 수록 현황

〈표 1〉 각 연도별 수록논문 건수 및 일본인명건수

연도	전체수록자료건수	일본인명건수
1910~1945	17,428(1982년 간행)	661(해방이전)
1945~1957		20
1958~1959		0
1960~1962		필자색인없음
1963		1
1964		13
1965		18
1966		32
1967		15
1968		31
1969		77
1970		67
1971		113
1972		205
1973		257
1974		116
1975		158
1976		291
1977		250
1978	32,349	406
1979	23,877	224
1980	26,138	254
1981	34,438	254
1982	39,976	381
1983	38,732	396
1984	42,098	457

〈뒷면에 계속〉

1985	42,356	399
1986	41,670	240
1987	36,703	236
1988	42,243	270
1989	37,003	194
1990	45,508	192
1991	45,042	299
1992	45,494	244
1993	43,250	197
1994	49,567	244

각 연도별 전체 수록논문 건수를 알 수 있는 것은 1978년도부터 이다. 1910~1977년까지는 쪽수만 기재되어 있어 전체 논문수록 수를 파악하려면 차례로 세어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1910~1945년분은 1982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각 논문마다 고유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국회도서관은 1978년도분부터 전산처리하여 각 논문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하여 전체 수록논문 건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간행빈도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연말에 일년간의 누적본이 나오기 때문에 누적본을 통해서 전체 수록논문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도부터는 연말 누적본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간기별로 나온 것을 합산하여 전체수를 계산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전체 수록논문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명건수는 해방 이전에는 전체의 0.04%이었으나 해방 직후엔 아예 없거나 또는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의 정치적 상황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70년대 들어와서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특별히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한다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2. 연도별 기술방법과 일본인명 표기

각 연도별(1945~1994) 색인형태의 변천, 인명표기에 대한 배열과 기술방법 그리고 실제 일본인명 표기예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색인의 배열 및 기술방법과 일본인명 표시

간행연도	誌名	간행빈도	인명표기의 배열 및 기술방법	색인의 일본인명표기에
1910~1945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해방전 간행본	외국인명도 한글로 표기하여 한국인명과 함께 배열·한글표 기의 방법은 대체로 게재잡지 에서 표기한 그대로 하였다.	卷末〈필자색인〉 加藤 敬三郎-01504 (수록논문일련번호)
1945~1957	국내간행물기 사색인	13년간의 누적본	외국인명도 한글로 표기하여 한 국인명과 함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권말〈필자색인〉 間中 喜雄...462(쪽수)
1958~1959	국내간행물기 사색인	2년간	.	권말〈저자색인〉 신례없음
1960~1962	학술잡지색인	연간 (1960, 1961-2, 2권으로 한국도서 관협회에 서 간행)	모든 인명은 배열의 편리상 먼 저 한글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원명(한자명 또는 로마자 명)을 괄호안에 기입하였다. ① 동양인명이 로마자로만 표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음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안 에 기입. ② 일본인명은 일본어 로 읽어 발음 되는대로 한글로 표기하고, 그 밖의 한자인명은 우리말로 읽어 표기. ③ 일본어 외의 외래어표기는 대체로 문 교부의 "로마자의 한글표기법 (1958)"에 따랐다.	〈필자색인〉 없음 범례의 예: ① 다나카, 이따루 (Tanaka, Itaru) ② 다나카, 다케오(田中 健夫) 요, 김추(齒齋秋)
1963	국내간행물기 사색인	연간	외국인명의 발음 및 표기방법 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저자색인〉없음 본문 속의 예: 가네고, 사이요 (金子 佐一郎) 나가후찌, 기도요시 (Nagahuchi, kiyotoshi)

〈뒷면에 계속〉

간행연도	誌名	간행빈도	인명표기의 배열 및 기술방법	색인의 일본인명표기에
1964	국내간행물기 사색인	연간	외국인명도 한글로 표기하여 한국 인명과 함께 가나다순으로 배열함.	권말<저자색인> 梅原 来治…201左
1965	국내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저자색인> 襦山 孝之…289左
1966	국내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필자색인> 國保 徳丸…85右
1967	국내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필자색인> 高橋 副井…165左
1968	국내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외국인명도 한글로 표기하여 한국 인명과 함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 였고, 한글표기화방법은 이회승 편<국어대사전>권말의 “한글표 기”에 따랐다.	권말<필자색인> 高橋 達男…277右
1969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필자색인> 가메이, 도시아끼(龜井 利明)…107
1970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 <저자색인> 角本 良平…360
1971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필자색인> 加藤 橘夫…251
1972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외국인명도 한글로 표기하여 한국 인명과 함께 가나다순에 의해 배 열하였는데 한글표기화방법은 잡 지에서 표기한 그대로 하였다.	권말<필자색인> 岡崎 和夫…386
1973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필자색인> 加藤 勇太郎…544
1974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필자색인> 阿部 吉雄…432
1975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필자색인> 上條 末夫…295
1976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필자색인> 松下 正壽…359
1977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	권말<필자색인> 紫田 義松…617

〈뒷면에 계속〉

간행연도	誌名	간행빈도	인명표기의 배열 및 기술방법	색인의 일본인명표기에
1978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컴퓨터입력이지만 표기방법은 그대로임)	권말<필자색인> 江上 波夫 - 79-03687 (컴퓨터입력에 의한 일 련번호 부여시작)
1979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권말<필자색인> 須之部 量三 - 79-03687
1980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격월간		권말<필자색인> 立花 義史 -80-21879
1981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격월간	외국인명도 한글로 표기하여 한국 인명과 함께 가나다순에 의해 배 열하였는데 한글표기화방법은 잡 지에서 표기한 그대로 하였다.	卷末<필자색인> 須藤 守夫 -81-28316
1982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 "		권말<필자색인> 川田 力三 -82-12887
1983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 "		권말<필자색인> 吉岡 芳夫 -83-35777
1984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 "		권말<필자색인> 市岡 四象 -84-32495
1985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 "	필자가 외국인의 경우 잡지에서 한글로 표기된 것은 한국인명과 함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으나, 잡지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이 영문으로 된 것은 한국인명 다음 에 ABC순으로 배열하였다.	권말<필자색인> 古橋 好 -85-40610
1986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 "		권말<필자색인> 中島 --86-35968
1987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 "		권말<필자색인> 後藤 芳夫 -87-13309
1988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 "		권말<필자색인> 本間 三郎 -88-29535
1989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 "		권말<필자색인> 日向 一雅 -89-22972
1990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 "		권말<필자색인> 寺谷 弘王 -90-01763

<뒷면에 계속>

간행연도	誌名	간행빈도	인명표기의 배열 및 기술방법	색인의 일본인명표기에
1991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권말<필자색인> 八巻 復雜-91-09449 (검색시스템 NOLIS 통해 1977년도분부터 검색가능)
1992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권말<필자색인> 若林 拓史-92-11451
1993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권말<필자색인> 川波 洋一-93-08569
1994	정기간행물기 사색인	계간	. .	권말<필자색인> 土井清民-94-06112

〈표 2〉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10~1945년의 해방전 간행분, 1945~1967년의 13년간의 누적분, 1958~1959년의 2년간, 1960~1962년의 3년분을 제외하고는 1963년부터 결호없이 꾸준히 간행되고 있다.

② 잡지명은 ‘국내간행물기사색인’, ‘학술잡지색인’, ‘정기간행물기사색인’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1969년부터 ‘정기간행물기사색인’으로 변함없이 간행되고 있다.

③ 간행빈도는 해방전 간행분, 13년간 누적분, 2년간, 년간을 제외하면 계간(1965~1979), 격월간(1980~1993), 계간(1994~)순으로 거의 13년 간격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분석대상이 된 <필자색인>중 1960~1962, 1963년 간행분만 없었다. 그러나 명칭이 <필자색인>과 <저자색인>이 혼용되었고 1971년부터는 <필자색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⑤ 배열 및 기술방법은 색인과 인명표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연도별 인명표기의 기술방법과 배열을 보면 :

1910~1945, 1945~1957, 1958~1959 : “외국인명도 한글로 표기하여 한국 인명과 함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고, 한글표기화방법은 잡지에서 표기한대로 따랐다.”:

1960~1962: “일본인명은 일본어로 읽어 발음되는대로 한글로 표기하고, 그 밖의 한자인명은 우리말로 읽어 표기한다.”:

1963 : “비록 저자색인은 없었지만 본문내용에 의하면, 일본인명을 원음으로 발음하여 표기하였으며 원괄호에 한자를 부기하고 있다.”:

1964~1967: 1958~1959년도와 동일하다.

1968~1971: “외국인명도 한글로 표기하여 한국인명과 함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고, 한글표기화 방법은 이회승 편<국어대사전>권말의 한글표기에 따랐다.”:

1972~1994: 1958~1959년도와 동일하다

그리고 기술방법 중 “외국인명도 한글로 표기하여... ”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 한글로 표기하느냐하는 발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나 실제로 배열된 인명을 보면 한자를 우리음으로 읽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작성방침⁶⁶⁾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성명은 原典에 나와 있는대로 移記하여 이를 채기한다. 즉,

1) 필자가 동양인인 경우

동양인명의 경우에는 원전에 인쇄된대로 전제하며, 중국인명과 일본인명은 한자를 우리말로 읽어 배열한다.

2) 필자가 서양인인 경우

필자가 서양인명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원전에 인쇄된대로 기입하되 이름을 도치시켜 姓다음에 諱를 부기한다. 그러나 서양인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을 때에는 原名를 중시하여 내용중에서 원명을 찾되, 찾을 수 없을 경우는 한글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명(중국인명 포함)은 한자를 우리말로 읽어

66) 이민환,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작성방법에 관한 小考—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Vol. 27, no. 1(1990, 1-2), pp. 117-118.

배열한다고 되어 있고, 서양인명은 원명을 중시하여 한글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용중에서 원명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다. 서양인명은 내용에 들어가더라도 원명을 찾아주고 동양인명은 그냥 한자를 우리말로 읽어 표기하고 있다. 서양인명은 원명이 중요하고 일본인명은 원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인 근거는 인명의 고유성의 인정이다. 그래서 원음대로 발음하고, 표기하고, 배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명도 원명을 중시하여 발음하고, 표기하고 배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음발음 및 표기에 있어서 문제는 일본인명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다. 일본인의 姓은 메이지유신(1867~68)이후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현재 27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성에 音讀이 아닌 訓讀이 많고 또 혼독이 어려운 성이 있다는 점이다.⁶⁷⁾ 예를 들면, ‘三’은 보통 ‘さん’이라고 읽지만, 성으로는 ‘み’라고 읽는다. ‘三島’, ‘三浦’, ‘三上’ 등이다. 또한 ‘原’은 보통 ‘はら’, ‘ばら’라 읽지만, 성으로는 ‘わら’라고 읽는다. 예를 들면 ‘藤原’나 ‘小笠原’은 예로 부터 있는 이름이다. 그리고 ‘井上’, ‘木下’는 ‘いうえ’, ‘きした’가 아니라 ‘いのうえ’, ‘きのした’라 읽는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자주 쓰이고 또 많이 쓰이는 성과 이름이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을 잘 익히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27만개나 되는 성이 있으나 일본인에게 많은 성은 대략 300개 정도이고, 그 중에서 쓰이는 한자는 거의 정해져 있어 그것만 외우면 일단 해결이 된다. 그리고 여자아이 이름과 남자아이 이름에 자주 쓰이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익히면 일본인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같은 姓이라도 표기는 같으나 다르게 발음되고, 발음은 같으나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인명의 가나 표기에 한자를 附記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한자의 혼독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 인명의 정확한 한자표기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도서관의 목록 작성자나 이용자 입장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67) 일본어저널, 1996, 1월호, pp. 19-24.

있다. 그런 점에서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일본인명 표기방법은 1963년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3. 우리음과 원음의 표기에 따른 배열위치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필자색인”은 우리음 배열을 원칙으로하고, 원음이나 로마자로 표기된 것은 수록된 誌名에 나타난 그대로 표기하였을 뿐이다. 여기서는 로마자로 표기된 인명은 맨 마지막에 별도로 수록하였으므로 배열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서 제외하였으며, 우리음과 원음 배열을 그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同一人名이 원음과 우리음으로 혼합되어 분산배열되어 있다.

예 : 司馬 遼太郎(88-29082)	가베이 도시아끼(龜井 明利, 1969)
시바 료타로(司馬 遼太郎, 88-29084)	구립 방남(1973)
시바 료오타로(82-27663)	龜井 明利(1973)

이 경우는 만약 이용자가 우리음 원칙을 그대로 따라 자료를 검색하면 원음으로 표기되어 배열된 자료는 검색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글 화표기법도 일관성이 없어(료따로, 료오타로) 다르게 표기되어 검색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② 同一姓 또는 同一字가 漢字의 우리음 발음방식에 따라 배열이 달라진 경우

예 : 芹澤 勝助(1976)	橋本 清(1977)
金山 政英(“금”으로 배열)	龜岡 暄一(“구”로 배열)
金子 秀夫(, ,)	구마카와 노부유키
吉田 耕三(84-01866)	宮下 三郎(82-20413)
金子 秀男(84-15190, “김”으로 배열)	龜田 泰武(82-35922, “귀”로 배열)
金子 丑之助(84-32097, , ,)	近藤 征年(82-36462, , ,)
나가다 사부로(84-36694)	

③ 同一人名이 같은 색인에서 漢字의 우리음 발음방식에 따라 배열이 달라진 경우

예: 金子 秀男(89-35887, “금”으로 배열)
기시베 시기오(89-1111)
吉成 大志(89-02335)
金子 秀男(89-35892, “김”으로 배열)

④ 인명을 수록된 그대로 표기함으로써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어 표기된 경우

예: 관原 和信(85-)(한글+漢字)
뢰口 賢治(85-14955)(. .)
野고 利 (85-06493)(. .)
井上 히사시(82-26585)(. .)
野瀬 야스시(79-13552)(. .)

⑤ 동일인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다른 인명으로 간주된 경우. 원문에 그렇게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입력할 때의 실수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동일인명인 것은 색인의 서지사항을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a) 발음은 다르나 글자가 비슷한 경우

예: 平木 輝未(80-05731)
平木 輝夫(80-05732)
松崎 半郎(02813, 1910-45)
松崎 羊郎(02505, 1910-45)
小名 考雄(80-00287)
小名 孝雄(80-00286)
熊井 農二(85-39042)
熊井 豊二(85-39043)
添田 端夫(92-43944)
添田 瑞夫(92-43694)

b) 발음은 같으나 글자가 다른 경우

- 平山 化男(93-10156)
- 平山 和男(93-10154~5)
- 攝田 勝藏(80-23944)
- 堀田 勝藏(80-24943)
- 江畑 彌 治(80-05443)
- 江田 彌 治(80-05885)
- 河島 孝此(92-11205)
- 河島 孝次(92-11206)
- 佐頼 昌盛(80-00865)
- 佐瀬 昌盛(80-01077)
- 桑原 隆詞(94-10699)
- 桑原 隆司(94-10179)

⑥ 인명을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한 경우

- 고견 중기(78-28159)
- 점구 방지진(78-22195)
- 산기 태희남(79-01495)
- 좌퇴 창성(89-03902)
- 미과 휘언(90-03974)
- 총합 달웅(90-07617)
- 타입 무자(90-11059)
- 팔번 성미(91-08869)
- 도본 구수미태(92-08481)
- 광희 무언(92-11030)
- 소총 소차(92-04410)
- 적퇴 아자(92-24568)

⑦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되 원괄호에 한자를 부기한 경우

사천 태부(砂川 泰夫)

삼곡 청수(森谷 清樹)

시전 덕의(蔣田 德義)

⑧ 동일 인명이 한자표기와 한글표기로 되어 있을 경우 다른 인명으로 간주하여 배열

예: 本度 涼(90-05410)

본도 양일(90-39281)

山崎 太喜男(79-00662)

산기 태희남(79-01495)

界屋 太一(92-01357)

계옥 태일(92-01336)

五十嵐 清(88-06082)

오십람 청(88-05280)

⑨ 성과 이름을 붙일 때와 띄울 경우 배열이 달라진다.

鈴木敏(1910-45, 17406)

鈴木 作次(- 04869)

鈴木 虎太郎(- 03465)

鈴木 敏(- 17318)

⑩ 우리음으로 배열된 인명과 원음으로 배열된 인명을 비교하여 배열위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1945-1957년도의 것을 사례로 정했으며, 일본어 가나(假名)의 한글표기는 교육부 편수자료 <외래어표기용례집>의 규정에 따른 日外 アソシエーツ編, 日本人名よみかた辭典, 高秀晩 監修, 서울:그린비, 1995을 따랐다. 그리고 土肥 耕三, (最新) 著者名 よみかた辭典, 上,下, 東京:日外アソシエーツ, 1985을 참고하였다.)

(표 3) 우리음 배열과 원음 배열의 비교

우리음 배열	원음 배열
間中 喜雄(마나카 요시오)	가와시마 타케요시(川島 武宜)
大久保 利謙(오쿠보 토시아키)	나카노 에이지(中野 重治)
藤原 貞(후지하라 사다)	나카니시 세쓰(中西 切)
美濃部 亮吉(미노베 료키치)	노무라 켄타로(野村 兼太郎)
保高 德藏(호다카 토쿠조)	니시에 타카유키(西江 孝之)
福田 實(후쿠다 타카시)	다케야마 미치오(竹山 道雄)
上杉 重二(우에스기 시게지)	도이 아키오(土井 明夫)
西江 孝之(니시에 타카유키)	마나카 요시오(間中 喜雄)
野村 兼太郎(노무라 켄타로)	미노베 료키치(美濃部 亮吉)
竹山 道雄(다케야마 미치오)	오쿠보 토시아키(大久保 利謙)
中西 切(나카니시 세쓰)	우에스기 시게지(上杉 重二)
中野 重治(나카노 에이지)	호다카 토쿠조(保高 德藏)
川島 武宜(가와시마 타케요시)	후세 타쓰지(布施 辰治)
土井 明夫(도이 아키오)	후지하라 사다(藤原 貞)
平野 義郎(히라노 요시로)	후쿠다 타카시(福田 德藏)
布施 辰治(후세 타쓰지)	히라노 요시로(平野 義郎)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음 배열과 원음 배열을 비교해 보면 배열위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이용자의 검색과 직결되며, 이용자의 검색효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는 1945년부터 1994년까지 50년간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중의 <필자색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속에 나타난 일본 인명의 표기방법의 변화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사

실과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시적인 외부 간행본인 1960~62년(한국도서관협회 간행)의 표기만이 유일하게 일본인명의 원음표기를 실행하였다. 그것을 제외하면 1963년도가 비록 <필자색인>이 없지만 원음으로 표기하였으며, 원괄호에 한자를 부기하고 있다. 일본인명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1963년의 표기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2)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작성방침에 의하면, 서양인명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을 때 원명을 중시하여 내용중에서 원명을 찾는다 고 되어 있으나 일본인명은 한자를 우리말로 읽어 배열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본인명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며, 또 작성편의에 따라 언어를 차별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3) 우리음표기와 원음표기가 혼합 배열되어 있다. 인명은 자료검색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채택하지 않고 잡지에 표기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검색에 혼란을 주고 있다.

4) 동일인명이 원음과 우리음으로 표기되어 분산 배열되어 있다. 같은 저자의 저작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없다.

5) 동일 성 또는 동일자가 한자의 우리음 발음방식에 따라 배열이 다르다.

6) 인명을 잡지에서 표기한 그대로 함으로써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어 표기되어 국적불명의 이름이 되었다. 이 또한 인명의 고유성을 상실한 표기이다.

7) 인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동일인명이 다른 인명으로 간주되어 배열되어 있다.

8) 동일인명이 한자표기와 한글표기로 되었을 경우 다른 인명으로 간주하여 배열되어 있다.

9)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되 원괄호에 한자를 부기하여 배열된 경우도 있다. 원음으로 읽어 한자를 부기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표기방법이 될 것이다.

10) 성과 이름을 붙일 때와 뗄 경우 배열이 달라진다.

11) 필자색인이 인명전자목록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이 명실공히 국가서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자색인>이 인명전거목록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목록이 인명전거파일이 없는 다른 도서관에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일본도서관이며 국가도서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Study on the Script of Japan Author Names with Chinese Character in 「Periodical's Index」

Young-Kuy Kim*

〈Abstract〉

Some conclusions can be derived form the study :

1) The script of Japan author's name for 3 years(1960~1962, not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but by Korea Library Association)and that of 1963's was arranged by their mother tongue although they had not the "author index".

2) "Periodical's Index" which the publication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was not accept the principle that the person's name should be pronounce and script by one's mother tongue. It means that the Library was not accept the uniqueness of personal name.

3) Because the arrangement of the same person's name is mixed with one's mother tongue pronunciation and Korean one that they are scattered each another.

4) The same surname and the same Chinese character has different arrangement because of pronunciation rule of Korean language.

5) The same person's name was regarded as a different one be-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usan Women's University

cause of nonaccurate name transcription.

6) A Japanese name was transcribed as Hangul with Korean pronunciation.

7) A Japanese name was transcribed as Hangul with Korean pronunciation and added Chinese Character in parenthesis.

8) A same Japanese name was regarded as a different one when it was transcribed with Chinese character and Hangul.

9) The arrangement of a same person's name was different when between the surname and forename has one space and has not.

10) "Author Index" is not playing as a role of name authority file.